“에베레스트 등정 부처님 가피로 가능”

유럽여성 중 최연소 에베레스트 등정 몰리 휴즈



에베레스트산의 남·북쪽 양방향 루트로 등정에 성공한 최연소 영국 산악인이자 최연소 유럽 여성인 몰리 휴즈(26)가 “부처님 가피로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해 화제가 되고 있다. 사진 출처=에든버러이브닝뉴스

역대로 에베레스트 정복에 성공한 사람은 4000명 이상으로 알려지지만 1920년 이후 이곳에서 사망한 사람도 200명 이상이다. 신이 허락해야만 등정에 성공할 수 있다는 에베레스트. 이곳을 부처님의 가피로 오를 수 있었다고 말한 이가 있다. 바로 몰리 휴즈(26)다.

영국 여성 몰리 휴즈가 에베레스트산의 남·북쪽 양방향 루트로 등정에 성공한 최연소 영국인 산악인이자 최연소 유럽 여성이라고 5월 21일 에든버러이브닝뉴스가 보도했다. 몰리 휴즈는 “불교의 목걸이가 정상에 오를 수 있는 힘을 줬다”고 밝혔다.

몰리 휴즈는 5월 16일 새벽 4시 45분 동 트기 시작할 때 정상에 이르렀다. 원정대 중 등반 파트너 존 굽타와 함께 전날 오후 8시 30분 마지막 여정을 출발한 후 약 8시간 만이었다. 몰리 휴즈는 “우리가 정상에 도착했을 때 정확히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면서 “정말 힘들었다. 근데 정상을 불과 10m 남겨뒀을 때 감격을 잊지 못한다. 난 파트너 존과 포옹을 나눴다. 그 기분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다”고 회상했다.

특히 몰리 휴즈는 등반에 오르기 전 불교의식에서 받은 목걸이가 내내 큰 힘이 됐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몰리 휴즈는 산소마스크를 착용하고 잠에 든 동안에도 목걸이를 곁에서 떨어트리지 않았다.

몰리 휴즈는 “출발하기 전 불교행사에 참석하면 부처님 가피를 받으란 의미의 목걸이를 나눠준다. 난 지극히 신앙적이진 않지만 모든 것이 절망적인 순간에 붙잡을 무언가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등반 오르기 직전 불교의식서
부처님 가피 담긴 목걸이 받아
8,848m 등정 동안 큰 힘 돼줘
출발 전 고된 훈련 숨은 노력도

원정대 수석 스폰서 티소 그룹
CEO “용기와 헌신 자랑스러워”

이어 “에베레스트 등반은 내 삶에서 가장 고된 7일이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고통의 순간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분리해야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몰리 휴즈의 이 말은 고통은 단지 순간이며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란 것을 깨달아야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쪽 루트 캠프3번으로부터 8,848m로의 등반은 영국 남서부 토베이에서 태어나 에든버러에서 성장한 평범한 여성을 남북 양방면으로부터 등정에 성공한 최연소 영국인 여성으로 탈바꿈시켰다. 몰리 휴즈가 인터뷰에서 “부처님 가피 덕분”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그 뒤엔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 몰리 휴즈는 베이스캠프에 도착하기 전 스코트랜드에서 벤 네비스산 등 험준한 산을 몇 주 간 등반한 것을 포함해 네팔에서 4주간 적응훈련에 돌입했다.

또 원정대의 수석 스폰서로 나선 티소(Tiso) 그룹의 후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몰리 휴즈는 말했다. 티소는 스코트랜드에 기반을 둔 크리스 티소 CEO가 경영하는 아웃도어업체다. 몰리 휴즈는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등반하는데 가이드 비용 등 포함해 약 5만 파운드(약 7,256만원)의 비용이 필요했다. 모금운동을 벌였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다”면서 “티소가 후원을 결정해준 것은 기적과 다름없었다”고 언급했다.

크리스 티소 CEO는 몰리 휴즈의 등정 성공 소식에 “정말 놀랍고도 영감을 주는 위업(偉業)”이라면서 “그녀의 후원자이자 친구로서 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오른 몰리 휴즈의 용기와 헌신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축하를 전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이연걸, 갑상선 회복하려 불교 좌선을?

中 언론 “최근 산에 들어가 하루 8시간 이상 좌선”

건강 악화로 두문불출하고 있는 중국 배우 이연걸(李連杰 · 54)이 하루 8시간 이상 불교좌선을 하며 회복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투병 중인 이연걸 씨가 최근 산에 들어가 하루에 8시간 이상 불교식 좌선을 하고 있다고 차이나프레스 등 중국 언론들이 전했다.

이연걸 씨는 2013년 발병한 갑상선 기능항진증이 악화된 후 약물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당시 살이 많이 찌고 부종이 심할 뿐 아니라 급격한 노화로 인해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후문이 돌았다. 최근 할리우드 액션배우 제이슨 스타템과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어느 정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완벽한 몸 상태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연걸 씨는 한때 중병이었던 부인 리즈(利智 · 56)가 불교 명상 등 도움으로 건강을 회복한 일례에 따라 자신도 건강 회복을 위해 불교식 좌선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이연걸 씨는 투병 후 불교행사 및 사원에 방문하는 모습을 종종 공개하기도 했다.



쿵푸 스타 이연걸이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투병 중인 가운데 최근 건강회복을 위해 불교식 좌선에 임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사진출처=차이나닷컴

또한 차이나프레스는 이연걸이 중국 국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보도했다. 2009년 이연걸은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해 그를 중국인의 자랑으로 여겨왔던 자국 팬들이 크게 실망을 표출한 바 있다. 당시 싱가포르 국적 취득의 배경을 두고 소문이 무성했는데 가장 큰 표면적 이유는 두 딸의 교육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이나프레스는 이연걸이 중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건강이 회복불능의 경우로 치닫는 경우 고향인 중국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 게 아닌가”로 추측했다. 박아름 기자

中·우크라이나 불교문화 교류 박차

5월 23일 불교 주제 원탁회의 개최



티베트 문화 교류 사절단 대표 쩡두이(왼쪽에서 두 번째)와 우크라이나 종교과학 협회장 아나톨리 콜로드니(가운데)가 불교문화를 공유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 출처= 신화통신

중국과 우크라이나가 불교문화 교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신화통신은 5월 23일(현지시간) 중국, 우크라이나 불교 관련 종사자들이 최근 모임을 가진 것에 대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과 우크라이나는 23일 불교의 과학 · 철학 · 종교적 측면에서 토론하는 원탁회의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우크라이나 국립 과학 아카데미 부설 철학 연구소에서 개최됐으며, 30명의 철학자 · 종교학자 · 불교학자 및 신자들이 참석했다.

티베트 문화 교류 사절단 대표 쩡두이는 “이번 회담의 주 목적은 중국과 티베트에 산재된 풍부한 불교문화와 역사적 유산을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는 문화교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대표를 비롯해 과학자, 그리고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칭송되는 사람들을 사절단으로 구성했다. 이번 교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티베트 불교의 특별한 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종교과학 협회장인 아나톨리 콜로드니는 “우크라이나에서 불교에 대한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불교적 사상이 사회를 조화롭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불교를 통해 타인에 대해 자비와 관대함을 베풀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크라이나의 다른 이웃종교들은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불교는 그렇지 않다. 이웃종교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불교적 자세를 배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에는 1980년 후반 한 스님이 방문하면서 불교가 처음 소개됐다.

이후 1991년 세 개의 불교공동체가 우크라이나 지역 동부 도네스크시, 칼코브, 루간스크 지역에 등록됐다.

현재 58개의 불교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등록돼 있지만,현지에 있는 종교 과학자들은 약 100개의 공동체가 활동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한편 동유럽 국가 내 불교 신자 수는 약 5,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보형 객원기자



동영상에서는 스님이 버스 통로쪽에 앉아 앞좌석에 팔을 걸치고 스마트폰으로 성인물을 보는 장면이 담겨있는데, 근처에 앉은 승객들에게 시끄러운 소리와 신음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출처=www.rt.com

버스에서 포르노를… “스님 맞아?”

태국서 승려복장 남성 성인물 보는 장면 포착

승려복장을 한 남자가 버스에서 스마트폰으로 성인물을 보는 모습이 SNS을 통해 공개되며 전 세계에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22일(현지시간) 태국 북부의 르이를 여행 중이던 위트왓 웡하죽씨는 버스에서 승려복을 잘 차려입은 입은 남성이 휴대폰으로 포르노를 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담았다.

동영상에서는 스님이 버스 통로 쪽에 앉아 앞좌석에 팔을 걸치고 스마트폰으로 성인물을 보는 장면이 담겨있는데, 근처에 앉은 승객들에게 시끄러운 소리와 영상 속 신음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이 영상은 160만 명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동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은 혐오감을 표시했다. 반면 동영상의 주인공이 정말 스님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게시물을 올린 위트왓씨는 “태국에서는 스님들이 존경받는 존재다. 하지만 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佛事의 모든 것
대원불교 사랑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사랑을 성원해 주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사랑에서는 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및 불교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거한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대표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73-3722. 010-7171-2636
010-4037-3722
팩스 031)573-3723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사랑이 되겠습니다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치유도 전문가를 만나야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행복이 걸린 문제입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 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 마다 가위 눌리는 경우
- 숙면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 심한 경우
-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가정불화, 사고 우환이 계속되는 경우
- 중, 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 행동, 폭력적 행동, 학습능력저하, 자살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을 해도 효과 못 보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 천도가능 함.
- 신기운, 무병에 시달리는 경우
- 동물(소,돼지,개,닭,오리,어류 등). 식물(큰나무 베고 탈난 경우) 영가도 천도 가능함.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또 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원격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가능)
- 몸안에 들어온 영가제령, 최고실력 보유 (전국 최고)

상담문의처 | 제주 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 전국 어디든 상담환영!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참기 힘든 치아통증, 거친 피부
피부·치아건강제
건강한 치아,
아름다운 피부를 원하십니까?

참기힘든 치아 통증, 치아건강 백세인생
거친피부, 노화촉진, 피부건강, 청춘인생

약사여래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원력으로
건강하여지니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료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아토피, 피부알레르기,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등 치아피부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12